

코스 : 동남산 산책

매월 2토일 09:30 ~ 13:30

출발 : 통일전 주차장

가는곳 : 남산리, 불곡, 탑곡, 미륵곡

동남산 가는 길

전설이 있다. 신라의 역사가 있다. 유적이 살아 숨쉬는 노천 박물관이 동남산 기슭과 남천을 끼고 웅기종기 모여 있다. 가벼운 발걸음으로 답사의 길 떠나보자.

토함산에서 흘러내린 물줄기는 내동평야를 가로질러 보리사 마애여래좌상의 평온한 미소를 받고 동남산을 감싸면서 흐르는 남천은 서라벌에 풍요로움을 베풀어 주고 있다. 신라인들의 불국토에 대한 간절한 염원을 담은 남천은 오늘도 월명사(月明師)가 피리 소리로 달을 멈춘 월명리를 거쳐 월성을 구비 돌아 여유롭게 흐르고 있다.

남천의 모래처럼 우리도 오늘은 물길 따라 월정교, 인룡사, 춘양교, 상서장, ... 염불사까지 거슬러 올라 가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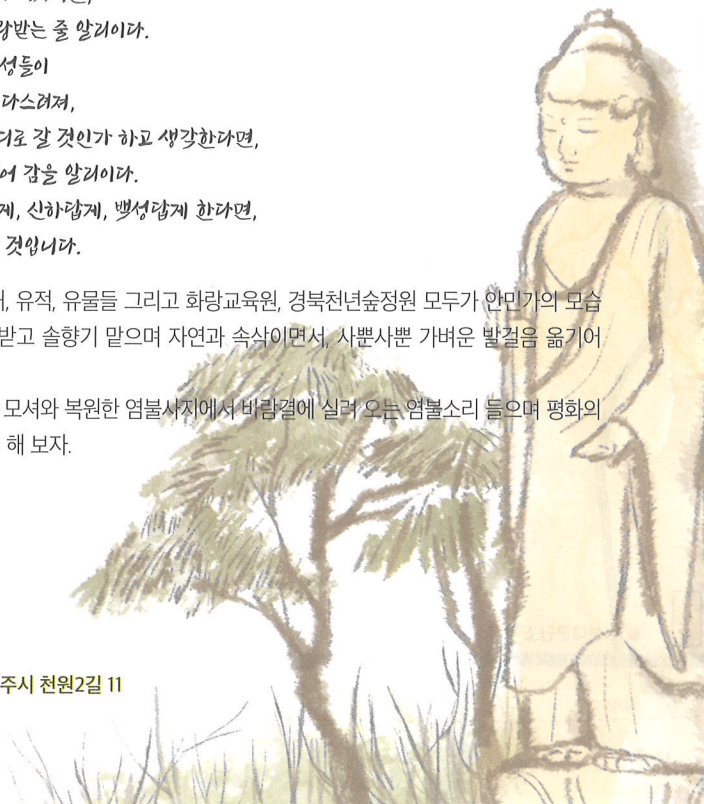
월정교를 세운 경덕왕이 남산 삼화령에서 미륵 세존께 차공양하고 돌아오는 총담 스님을 만났다. 총담스님은 백성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안민가(安民歌)를 지어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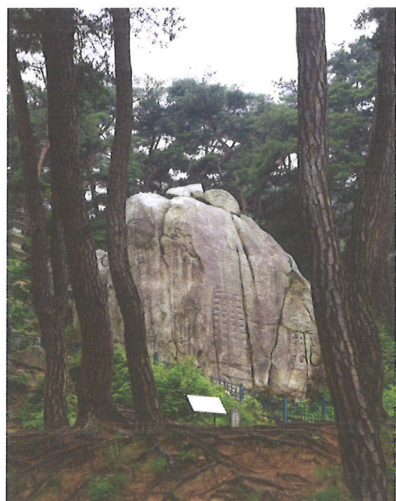
임금은 아버지요,
산하는 자애로운 어머니시고,
백성들은 어린아이라 여기시면,
백성들이 스스로 사랑받는 줄 알리이다.
굶절거리며 사는 백성들이
사랑을 먹고 스스로 다스려져,
이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갈 것인가 하고 생각한다면,
나라 안이 가히 되어 감을 알리이다.
아 ~ 아 ~ 임금様제, 산하様제, 백성様제 한다면,
나라 안은 태평 할 것임너라.

동남산 아래 돌부처, 유적, 유물들 그리고 화랑교육원, 경북천년숲정원 모두가 안민가의 모습 이기에 아침 햇살 받고 솔향기 맡으며 자연과 속삭이면서, 사뻐사뻐 가벼운 발걸음 옮기어 보자.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셔와 복원한 염불사지에서 바람결에 실려 오는 염불소리 들으며 평화의 염원으로 탑돌이를 해 보자.

📍 월정교주차장 : 경주시 천원2길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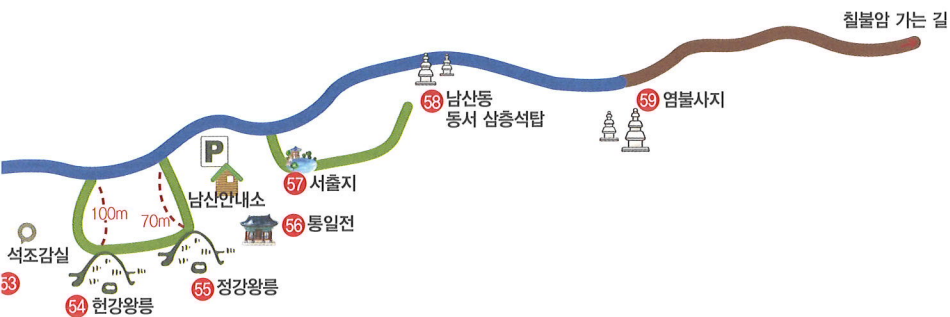
- 14 ○ 동남산 가는 길
- 16 ○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 가는 길
- 34 ① 월정교
- 69 ④ 인왕동사지
- 70 ④ 춘양교지(일정교)
- 70 ④ 정순임 판소리연구소
- 71 ④ 상서장
- 72 ⑤ 새벽비
- 72 ⑥ 고청기념관
- 73 ⑦ 불곡마애여래좌상
- 74 ⑧ 탑곡 제1사지 마애조상군
- 75 ⑧ 옥룡암과 탑곡마애불상군
- 76 ⑨ 보리사 마애석불
- 77 ⑨ 미륵곡 석조여래좌상
- 78 ⑨ 경북천년숲정원
- 78 ⑨ 화랑교육원과 석조감실
- 79 ⑨ 헌강왕릉
- 79 ⑨ 정강왕릉
- 80 ⑨ 통일전
- 80 ⑨ 서출지
- 82 ⑨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 83 ⑨ 염불사지



쉽게 찾아가는 동남산 가는 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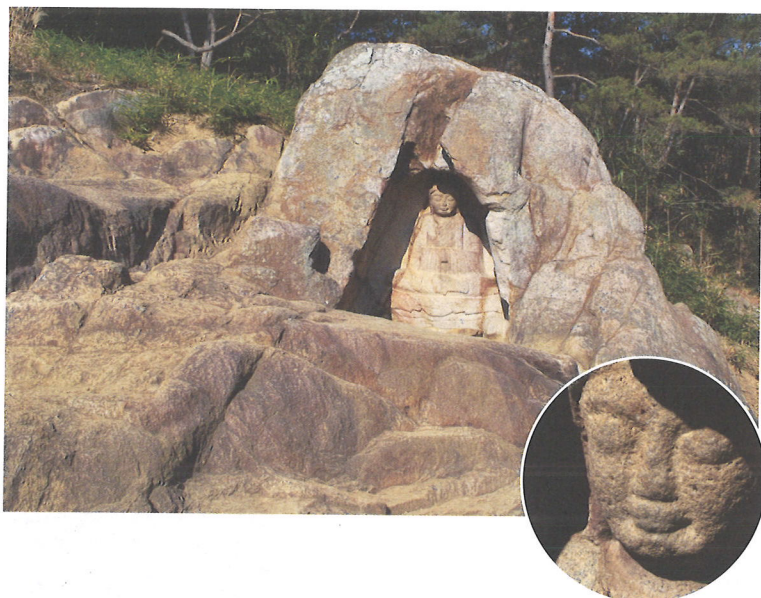
- 도로
- 도로(차량 금지)
- 답사길(산길)





불곡마애여래좌상⁴⁷⁾

보물 198호



너비 4.5m, 높이 3.2m 쯤 되는 바위에 무지개 모양의 감실을 파고 시골 할머니 같은 부처님을 새겨 놓았다. 얼굴은 고부조로 새기고, 신체는 약간 낮게, 대좌는 저부조로 조성하였다. 편평한 신체, 크고 둥근 얼굴은 명상에 잠긴 듯이 다소곳이 숙이고, 낮은 육계와 소매의 머리는 미끄러지듯 귀와 어깨를 덮었다. 뭉툭한 코, 푹박진 눈은 그림자가 어려 부드러운 눈썹과 명상에 잠긴 듯한 눈매를 그려낸다. 도톰한 입술, 뺨 등은 부드러운 볼륨으로 부풀어 있다. 네모난 어깨, 넓은 무릎은 육중하면서도 안정된 구도를 취하고 있다. 통견의 법의 사이로 드러난 가슴은 사각형으로 표현되었고, 깊고 강렬한 선각으로 새긴 옷 주름은 소매 사이로 흘러내려 폭포수 같은 느낌을 주고 있다. 수인은 선정인으로 추정 되고 있다. 신라인들은 바위에 부처를 새긴 것이 아니라, 바위 속의 부처를 찾아내었다. 좁은 굴속에 있으면서도 답답해 보이지 않는 것은 시골 할머니가 돌로 만든 집 속에서 편안히 쉬고 있는 듯한 모습이기 때문이다.

이 불상은 불상으로 보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지만, 조각의 고식, 육계와 어깨, 수인과 소매, 옷 주름의 간결하고 거친 조각, 상현좌, 발 조각의 고졸함 등으로 보아 고신라 시대의 신라에서 가장 오랜 석불(마애불)로 꼽혀지고 있으며, 흔히 석굴사원의 선행 양식으로 일컬어지고 있다.

경주시 인왕동 180-3



옥룡암과 탑곡 마애불상군⁴⁹⁾

보물 201호



옥룡암은 작고 아담한 절이다. 일제강점기 때 많은 저항지식인들이 머물렀던 절이다. 이육사도 1942년 7월부터 석 달을 이곳에 머물렀다,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단풍이 유달리 아름다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절 뒤 높이 10여 m, 둘레 30여 m 바위 암벽에 사방으로 돌아가며 환상적인 부처님의 세계가 펼쳐져 있다. 바로 올라다 보이는 북면에는 9층 목탑과 7층 목탑이 있고 그 가운데 연화대 위에서 설법하는 부처님이 계신다. 탑 위에는 비천이 너울너울 춤을 추며 날고 있다. 신라시대의 목탑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 동면에는 본존과 보살, 하늘에서 날아 내려오는 일곱 구의 비천상이 있다. 불보살상 좌측 아래에는 돛자리를 펴고 앉아 공양 올리는 스님상이 있다. 가히 환상적이며 그림 같다. 면적이 좁은 서면에는 부처님 한 분과 비천 두 구가 있다. 부처님 위의 비천상은 흔히 신라여인의 모습이라고 한다. 남면에는 삼존불과 함께 독립된 불상이 있다. 삼존불은 화목한 가족을 연상케 한다. 우협시 보살은 경직된 모습이고, 좌협시 보살은 부처님에게 공석을 부리는 듯하다. 남면에만 목조 건물이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4면에 새겨진 불상과 탑들은 사실적이라기 보다는 회화적이다.

마당 남쪽에는 삼층석탑 1기가 우뚝 서 있다. 9세기 말에 조성된 탑이다. 이 절터에서 「神印寺」란 기와 명문이 출토되었다 하여 「신인사」로 알려지고 있다. 신인사는 신인종의 명랑스님이 당나라의 군사를 몰아내기 위해 사천왕사에서 기도 중 부처님의 힘을 빌기 위해 이 바위에 만다라적인 부처의 세계를 조성하여 건립한 사찰이 아닐까?

경주시 배반동 1132-69

○ 보리사 마애석불⁵⁰

유형문화재 193호

대나무 숲길을 지나 가파른 오르막을 150m 쯤 올라가면 경사가 급한 산허리에 높이와 너비 2.4m 정도 되는 바위에 마애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다. 앞을 향해 약간 굽어 있는 바위 벽면에 거신광의 감실을 파고 불상을 새겨 놓았다. 나발은 양증맞을 정도로 귀엽고, 얼굴은 밝은 미소를 띠고 있다. 신체는 부드럽고 무릎과 대좌를 새긴 솜씨는 다소 둔하다. 생글생글 웃으며 반겨주신다. 연꽃 위에서 밝은 미소를 머금은 모습으로 넓은 서라벌 벌판을 굽어 보고 계신다. 건물을 세울 수도 없는 이 가파른 곳에 왜 불상을 조성하였을까?

부처님의 자리에서 앞으로 내다보면 저 멀리 보문들과 낭산의 선덕여왕릉과 사천왕사가 한눈에 들어온다. 펼쳐진 광경이 풍요롭고 가슴이 활짝 열린다. 이 곳에서 언제나 서라벌을 굽어 살피시며 이 땅의 백성을 보살펴 왔으리라. 9세기 말에 조성된 불상이다.

경주시 배반동 산 66-1



미륵곡 석조여래좌상⁵¹

보물 136호



보리사는 남산 일대에서 가장 큰 절이다. 옛 절터에 근세에 다시 세운 절이다. 이곳에서 내려다보는 서라벌 경관이 장관이다.

이 절 왼쪽에 통일신라시대를 대표하는 불상이 있다. 모든 조건을 고루 갖춘 전형(典形) 불상이다.

대좌는 역센 복련 연꽃과 팔각의 중대석, 탐스런 양련으로 된 삼단대좌, 결가부좌로 항마촉지인(降魔觸地印)을 하고 긴 눈을 가늘게 내리 뜨고 있다. 종교적인 신비감이 어린다. 이마엔 백호의 흔적이 남아 있고 입가엔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고 계신다. 옷자락은 석굴암 불상보다는 다소 거칠지만 유려하게 흘러내린다.

거신광으로 된 광배는 화려하다. 화려하고 부드러운 화염문, 여섯 송이의 연꽃으로 장식된 두 줄기의 선으로 신광을 나타내었고, 또 다섯 송이 연꽃으로 두광을 장식하였다. 7구의 화불(化佛)은 구불거리며 솟아 오른 줄기 위에 핀 연꽃에 앉아 계신다. 연화화생(蓮花化生)이다. 전체 높이 4.36m, 불상높이 2.44m이다.

광배 뒷면에는 약사여래좌상이 새겨져 있다. 약그릇을 들고 계신다. 앞면의 여래상은 8세기 후반에 조성되었고, 뒷면의 약사여래상은 9세기 말에 조성된 것으로 보인다.

경주시 배반동 산 66-1



헌강왕릉⁵⁴ 과 정강왕릉⁵⁵ ○

사적 187호 · 사적 186호

헌강왕(憲康王, 875~886) 시대는 신라말의 태평성대였다. 서울에서 지방에 이르기까지 집들은 연이어져 있고, 초가는 없었다. 숲으로 밥을 짓고, 풍악과 노래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비와 바람도 사철 순조로웠다. 일본왕이 사신을 보내 조빙하기도 하였다. 동해용왕의 아들 처용이 왔고, 남산신이 내려와 춤을 추기도 하였다. 왕릉은 흙으로 쌓아올린 원형봉토분으로서 밑둘레에는 장대석을 4단으로 쌓아 보호석으로 삼았다.

정강왕(定康王, 886~887)은 헌강왕의 동생으로 재위 2년(887) 봄 정월에 황룡사에서 백고강 좌를 열고 강설(講說)을 들었으며, 이찬 김요의 반란을 진압하였다. 재위 2년에 후사(後嗣) 없이 병환으로 돌아가시니 여동생 진성여왕(眞聖女王)이 왕위에 올랐다. 왕릉은 헌강왕릉과 비슷하지만 밑둘레 호석이 3단이다.

두 왕릉 모두 도로에서 150~200여 m 거리로서, 구불구불한 소나무 숲길은 남산의 또 다른 경관이다. 특히 봄이면 진달래와 개나리가 소나무와 어우러진 모습은 빼어난 풍경이다.

헌강왕릉에서 정강왕릉까지는 도로로 나가지 말고 숲 길을 걸어보자.

📍 통일전주차장
(경주시 칠불암길6)에서 도보 3~5분



○ 통일전⁵⁶

남산은 화랑들이 몸과 마음을 닦던 성지와도 같은 산이다. 신라는 660년 백제를 병합하고, 668년 고구려를 멸하였으며, 676년 이 땅에 주둔하던 당나라 군사를 완전히 몰아냄으로써 우리 역사상 처음으로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하고 삼국문화를 융합하여 통일신라 문화의 황금시대를 열었다.

통일전은 1977년 삼국통일의 역사적 성업을 완수한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장군의 업적을 길이 찬양하고 화랑의 호국정신을 오늘에 이어받아 발전하는 조국의 정신적 지주로 삼고자 조성되었다. 세 통일 영웅의 영정이 봉안되어 있고, 회랑에는 삼국통일의 기록화가 전시되어 있다. 또 삼국통일기념비와 태종무열왕, 문무왕, 김유신 장군의 사적비가 있다.

무엇보다도 남산의 동쪽 벌판이 시원하게 내려다보여 좋다. 은행나무 가로수가 노랗게 물드는 가을이면 더없이 아름답다.

📍 경주시 칠불암길 6



○ 서출지⁵⁷

사적 138호

통일전주차장 남쪽에 조그마한 연못이 있다. 연못가에서 배롱나무 꽃이 만발할 때 남산과 함께 바라보는 이요당(二樂堂)의 경치는 한 폭의 수채화다. 연못에는 연꽃이 가득 핀다. 이 연못에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 온다.

21대 비초왕(소지왕)이 즉위한 지 10년 되던 해(488) 정월에 왕궁을 명활성에서 월성으로 옮겼다. 신하들을 거느리고 천천정(天泉亭)에 행차할 때 까마귀와 쥐가 와서 울었다. 쥐가 사냥꾼의 말로 이르기를, "이 까마귀 가는 곳을 찾아 가 보시오." 하였다.

왕은 기사(騎士)에게 명하여 까마귀를 따라가게 하였다. 남산 동쪽 피촌(양피사촌)에 이르러, 돼지 두 마리가 싸우고 있는 것을 구경하다가, 문득 까마귀가 날아간 곳을 잃어버렸다. 이때 한 늙은이가 못 속에서 나와 글을 올리니, 걸봉에 쓰여 있기를 「떼어보면 두 사람이 죽는 것이고, 떼어보지 않으면 한 사람이 죽는 것이다」 하였다. 왕이 말하기를, “두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떼어보지 않고 한 사람만 죽는 것이 낫겠다.” 하니, 일관(日官)이 아뢰기를, “두 사람은 서민이요, 한 사람은 왕입니다” 하였다. 왕이 그렇다고 여겨 봉투를 열어보니, 그 속에 「거문고잡을 소라」고 쓰여 있었다. 왕이 궁중으로 돌아와 거문고잡을 소니, 내전의 분수승(焚修僧)과 궁주(宮主)가 몰래 간통(奸通)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처형하였다. 이로부터 나라 풍속에 해마다 정월 상해(上亥), 상자(上子), 상오일(上午日)에는 모든 일을 조심하고 꺼려 함부로 움직이지 않으며, 정월 16일을 오기일(烏忌日)이라 하여 찰밥을 지어 제사 지내니, 지금까지도 이를 행하고 있다. 이후 이 못을 서출지(書出池)라고 이름하였다.

이 이야기는 신라의 전통적인 토속 신앙과 불교의 갈등, 불교의 수용을 둘러싼 신라 왕실과 귀족 집단의 대립, 내지는 소지왕에 반대하는 왕실 내부 세력에 대한 제거를 상징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이 연못에 1664년 임적선생이 이요당(二樂堂)을 짓고 연꽃과 배롱나무를 심어 자연을 즐기며, 선비의 고고한 심성을 수련했다.

봄에는 매화, 목련, 벚꽃, 개나리, 진달래 등이 어우러지고, 여름에는 백일홍과 연꽃이 만발하고, 가을에는 노란 은행나무잎과 단풍이 아름답다. 계절에 따라 변하는 아름다운 경치를 즐겨보자. 연못 주변에는 조명을 더하여 밤에도 아름답다.

경주시 칠불암길 6



○ 남산동 동서 삼층석탑 (양피사지)⁵⁹

보물 124호



『삼국유사』의 염불스님 이야기에 등장하는 양피사지로 추정되는 곳에 동서로 삼층석탑 2기가 서 있다.

서탑은 이중기단으로 된 일반적인 양식으로, 석가탑에 버금가는 조화와 균형미를 갖춘 아름다운 탑이다. 상층 기단에는 팔부중상을 조각했다. 팔부중은 본래 힌두의 신들이었지만 불교에 수용되어 불법을 수호하는 호법신이 되었다. 남면 오른쪽의 건달바상은 악기를 연주하고 춤을 추는 신인데 사자탈을 쓰고 있으며, 왼쪽 아수라 상은 얼굴이 셋이고 팔이 여덟개로 손마다 무기를 들고 있으며 위로 올려든 손에는 해와 달이 들려있고, 배 앞에 있는 손에는 해골이 들려 있다.

동면 왼쪽의 야차상은 귀신 나라의 왕으로 염주를 입에 물고 손으로 헤아리고 있다. 오른쪽은 용왕으로 머리에 용관을 썼고 손에는 여의주가 들려 있다. 북면에는 얼굴 좌우에 소머리와 말머리가 달려있는 긴나라와 뱀의 신 마후라가가 새겨져 있으며, 서면에는 금강저를 들고 있는 천(天)과 중등이가 독수리 부리로 된 새의 신 가루다가 새겨져 있어 보는 재미를 더한다.

동탑은 광대한 이중의 지대석 위에 세운 전탑의 양식을 띠고 있는 모전석탑이다. 동탑은 곳곳하고 힘차게 솟아있어 남성답고 서탑은 부드럽고 화려하여 여성스럽다.

이 탑은 불국사의 석가탑과 다보탑처럼 형식을 달리하는 쌍탑으로 알려져 왔으나, 양쪽 탑의 지면의 높이가 다르고, 동서축이 달라서 별도의 탑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염불사지(念佛寺址)⁵⁹ ○

양피사지에서 다시 남으로 700여 m 가면 절터에 탑 2기가 있다. 1기는 불국사역 앞 공원에 있었고, 1기는 밭 가운데 무너져 있던 것을 2009년 본래 자리에 복원했다.

탑은 이중 기단 위에 장중하게 세워졌으며 층간 체감울과 옥개석, 탑신 사이의 공간이 넓어 시원한 느낌을 주고 있다. 상하층 기단 모두 탕주(撐柱)가 2개씩 새겨져 있어 석가탑과 같은 시대인 8세기 중엽의 탑이다. 탑은 본래 자연스런 바위처럼 된 돌무더기 위에 세워져 있었으나, 복원하면서 깎은 돌로 반듯하게 축대를 쌓아 올려 본래의 모습을 잃어 버렸다.

『삼국유사』 <염불사>조에 의하면 “**삼산 동쪽 기슭에 파리촌이 있고, 동네에는 파리사라는 절이 있었다. 절의 스님은 늘 아미타불을 염하는데 그 소리가 성안에게까지 들려 360방 17만호에 들리지 않은 곳이 없었다. 높고 낮음이 없는 소리는 한결같이 낭랑하여 모두가 그를 공경하여 염불스님이라 불렀다. 그가 죽자 소상(塑像)을 만들어 만장사에 모시고 그가 본래 살던 파리사를 염불사로 고쳐 불렀다. 이 절 옆에 또 절이 있는데 마을 이름을 따서 양피사라 했다.**” 한다.

이 탑은 복원할 때 스리랑카 종교부장관이 친히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시고 와서 봉안하였다. 새로운 전설이 시작되고 있다. 염불스님의 염불소리가 실바람을 타고 낭랑하게 들려오는 듯하다.

📍 경주시 칠불암길 125

